



익산시 수해현장 重 대규모 인력... 복구에 '큰 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익산시에 군부대 등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면서 긴급 수해복구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군당국은 익산지역 중 수해 피해가 가장 심한 용동, 용동, 망성면 일대를 군 집중 작전지역으로 선포하고 지역방위사단인 제 35사단을 중심으로 7공수, 11공수 등 1,000여 명의 군 장병 인력을 투입해 토사 및 농작물 제거, 침수된 주택 및 하우스 복원 등 긴급 복구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은 20일 망성면 화산리 일대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군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은 "수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군 장병들이 한낮의 폭염 속에서도 군사작전을 방해할 정도의 큰 활약을 펼치고 있다"면서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진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어 준 군 장병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35사단 군부대, 김제 진봉면 수해현장 구슬땀 흘려

육군 35사단 105여단 예비군 훈련대 장병 30여 명(중대장 김희태)은 지난 13~18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안하마을 수해현장을 19일 방문해 마을 뒷산에서 내려온 많은 양의 토사로 막힌 배수로 및 마을 안길 복구 작업을 위해 굵은 땀방울을 흘렸다. 신속히 안하마을 이재민은 주민 대부분이 고령층으로 피해 복구 생각이 막막했는데 우수한 장병들의 도움으로 예전의 마을 모습을 찾아준 군 장병들에게 고맙다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날 피해 복구 현장을 방문해 구슬땀을 흘리며 복구에 참여한 장병들을 격려했고 "지역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 군 장병들이 마을의 어려움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와줘 너무 고맙다"라며 가능한 모든 인적·물적 지원을 총동원해 집중호우 피해를 예방하고 김제시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105여단 훈련대 장병, 부안 졸포면 수해복구 구슬땀

부안군 졸포면(면장 채연길)에 417mm 상당의 폭우가 내린 가운데 20일 35사단 105여단 훈련대 장병들이 관내 취약계층 침수피해주택 복구지원작업을 실시했다. 20여명의 장병들은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졸포면 금동·선안마을에서 취약계층 주택의 토사를 치우고, 무너진 담을 정리, 마을 배수로를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채연길 졸포면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온 행정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하며 "재난을 빠르게 극복하고 주민들이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시민 체감 행정수행체계 개발

남원시, 고립 가구 실태보고·시책 추진 토론회 개최

남원시는 20일 시청 강당에서 읍면동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읍면동 복지 팀장 및 담당자와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원시 사회적 고립 가구 실태보고 및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남원시 위탁기관인 남원사회복지관이 주관하고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모사업비로 후원하는 행사로 인구감소 등 지역 현안에 적극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서원대 김준수 교수는 "남원시 1인 가구 실태조사"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전북대



김신열 교수를 좌장으로 전북연구원 이종섭 교수, 경희대 강내영 교수, 부산대방변복지관 이주은 관장이 열린 토론회를 펼쳤다. 이와 관련해 남원시는 1인 가구 안전불편을 위한 AI 도입 읍면동 스마트안전플랫폼 추진, 고위험군에 대한 일상돌봄서비스 등 시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관내 1인가구의 삶에 대한 태도, 주거환경, 건강 안전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수행체계를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군산시 자원봉사센터,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구슬땀

군산시에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약 600mm 가까운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곳곳에 침수와 토사가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해 군산시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봉사활동을 개시했다. 군산시는 지난 17일부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집중호우로 인해 자원봉사가 필요한 곳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자원봉사센터는 피해장소와 자원봉사자를 신속하게 연계해 자원봉사자들을 현장에 배치하고 있다. 군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진) 직원들과 희망백움봉사단(회장 김영림) 20여명은 지난 19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신중동 및 개장면 3세대를 방문해 장비를 할 수 없는 가옥내외의 토사 제거 및 침수가옥 내부 청소, 젖은 이불 및 옷가지 정리, 파손물품 청소 등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열악한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자원봉사에 최선을 다했다. 앞으로도 군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 직원 모두가 복구가 정러릴 때까지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곳에 발빠르게 봉사자들을 배치하고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지원과 안전관리에 힘을 기울인다.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군산시자원봉사센터(451-1365) 또는 여성가족청소년과(454-3215)로 자원봉사활동을 요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실의에 빠져있는 이웃을 위해 달려와 주신 자원봉사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김관근 기자

LH전북본부, 전북교육청에 안전 우산 기증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일 LH전북본부로부터 안전 우산 1,400개와 우산대 19개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안전 우산 기증식에는 LH전북본부 박인순 경영혁신부장 박경선 홍보차장, 박윤정 홍보대리, 전북교육청 임경진 교육협력과장, 노경숙 학교안전과장, 장대영 소통협력담당 사무관 김병준 소통협력담당 주무관 등이 참석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기증받은 우산은 각 학교로 배부하고, 그 중 40여 개는 도교육청 1층 놀뜰 지리 학부모성장센터에 비치해 교육청을 방문하는 학부모나 학생 등이 비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전북은행의 자선기 기증, 전북도 시(스)주) 도서 기증에 이어 이번 안전 우산까지 도내 공공기관의 다양한 교육기부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탄탄한 교육협력력을 바탕으로 둔 성과들로 의미가 있고, 앞으로도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한편 LH 전북본부는 지역 상생을 위해 사육을 공공기관이나 대학에 개방하는 등 지역밀착 소통을 펼치고 있다. /장은성 기자



한국교통-다비치안경, 군산신흥초 장학안경 기증

군산신흥초등학교(교장 손영선)는 20일 교내 강당에서 한국교통-다비치안경체인점과 함께 '학생 장학안경 기증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초등학생 100여 명은 전문안경사의 도움으로 정밀 시력검사를 받은 뒤, 안경이 필요한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안경테를 직접 골랐다. 한국교통 정성국 회장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눈 건강 보호와 관련된 사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생 장학안경 기증'은 지난 2017년부터 한국교통과 다비치안경이 업무협약을 맺고 진행하는 사업이다.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두 기관은 그동안 전국 80여개 학교 3,200여 명의 학생들에게 무료로 장학안경을 기증해 왔다. /장은성 기자



무주교육지원청, 영어 기초학력 향상·격차 해소 지원

무주교육지원청(김승기 교육장)은 지난 19일 영어 기초학력을 지원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관내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시청각실에서 EBS 강사(다지탈인재교육부 과장 권은경)를 초빙하여 연수를 실시하였다. 연수에 참석한 교사와 학부모들은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영어학습 플랫폼의 다양한 종류와 기능을 배우고 EBS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안내받았다. 이날 연수는 관내 교사와 학부모에게 큰 관심을 끌어 100여 명이 사전에 참가를 신청했으며, 연수 당일엔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들까지 동반 열의를 보였다. 무주교육지원청은 전라북도교육청이 추구하는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실천하고 무주 지역 학생들이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어 국제화 시대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 도 적극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송주섭 장수군 부군수, 청렴공감 릴레이 캠페인

송주섭 장수군 부군수가 공식사회 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20일 부군수실에서 '청렴공감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청렴공감 릴레이 캠페인'은 장수군의 고위공무원이 자신만의 청렴문구와 SNS 형식의 포토프레임을 활용해 촬영한 인증사진을 내부게시판에 공유하며 청렴의지를 전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장수군은 지난 12일부터 최후식 군수를 시작으로 공식사회 내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고위공무원의 청렴의지를 담은 '청렴공감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두 번째 릴레이 캠페인 주자로 나선 송주섭 장수군 부군수는 '청렴은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라는 문구로 청렴 실천 의지를 표명했다. 송주섭 부군수는 "이번 캠페인으로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 모든 직원이 청렴 실천의지를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다함께 노력해 투명하고 청렴한 장수군을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경찰, 피서지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진안경찰서(서장 주현오)는 지난 1일부터 하계기간 동안 피서지 성범죄 예방을 위한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을 시행했다. 이번 점검 기간에는 피서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운일안반일암, 자연휴양림 등 관광지 주변 공중화장실뿐 아니라 시장 터미널 등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을 위주로 점검하였다. 점검은 진안군청과 협업하여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카메라 기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는 경고스티커도 부착하고 피서객들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도 함께 진행하였다. 주현오 서장은 "피서지를 방문하는 분들이 안전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성범죄 뿐 아니라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마령고, 진로 봉사의 날 지역주민에 나눔 실천

마령고등학교(교장 이동욱)는 지난 7월 19일 전교생이 참여한 가운데 '2023 진로 봉사의 날'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진로 봉사의 날은 지역주민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날 행사에는 지역주민과 학부모 40여 명 및 인근 중학교 학생들도 함께 참여했다. 이에 따르면 마령고는 학생들이 진로를 스스로 탐색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해 6개의 진로 직업 프로그램을 매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진로 봉사의 날'은 진로직업 프로그램에서 배운 내용으로 지역 공동체에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행사로, 2020년부터 펼쳐왔다. /장은성 기자



남원 남송회, 보훈가족 사랑 나눔

남원 관내 기관장 모임인 남송회(회장 최경식 시장)는 지난 19일 남원 보훈회관에서 '보훈가족 사랑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남원 보훈회관에 상주하고 있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및 유족회 관계자와 간담을 실시하고, 후원 물품인 백미(4kg) 200포를 전달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남송회는 남원시장을 비롯한 남원기관장, 남원지정장 등 주요 19개 기관장 모임으로, 2015년부터 해마다 보훈가족을 위한 나눔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